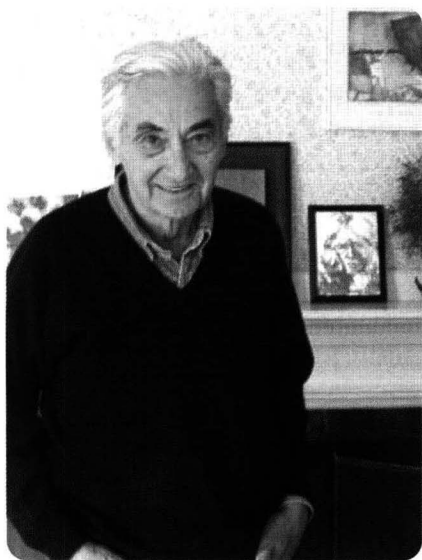


# Howard Zinn

## “좋은 전쟁good war이란 없습니다”



〈출판저널〉취재팀이 이메일로 보낸 질문에 하워드 진은 지난 2월 18일 답변을 보내왔다.

먼저 선생님의 저서 《Howard zinn on war》가 한국에서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는데 소감과 함께 한국의 독자들에게 인사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독자와 소통하게 된 것을 기쁘기 그지없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2차 세계대전에 전투기 폭격수로 참전하면서부터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경험한 2차 세계대전은 어떤 전쟁이었으며 그 전쟁이 남긴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는 정의의 편에서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의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폭격 임무를 위해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 누구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폭격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도, 저는 프랑스의 한 작은 도시에 대한 공습에 참가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훗날 저는 제 자신이 경솔하고 고분고분하게 행동했

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관한 자료를 통해 우리가 두 도시의 수십만 명에게 가한 끔찍한 행동을 알게 되었으며, 전쟁은 항상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학살을 동반한다는 점, 그럼에도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그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거나 인도적일지라도 모든 전쟁의 문제는 국가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동반한 무고한 이들에 대한 ‘계획적인 살육’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세계에서 미국에 의해 자행된 ‘살육’이 그동안 간과되거나 은폐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미국 정부가 전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숨긴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전쟁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생하게 알게 된다면, 정부가 자신들을 어떻게 기만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전쟁을 지지하지 않을 테니까요. 따라서 정보를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무시해 버려야 하는 거지요.

선생님의 이름은 한국에서는 노엄 촘

스키 등과 더불어 미국의 실천적 지식인, 반전주의자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미국 국내의 반전운동의 양상과 분위기는 어떠하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좋은 전쟁good war과 나쁜 전쟁bad war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며 좋은 전쟁이었다고들 생각합니다.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사람들은 폭정에 맞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득당하는 겁니다. 미국인들은 처음에는 베트남 전쟁을 지지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국이 어떻게 베트남을 파괴하고 있는지,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기만하는지를 깨닫자 전쟁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날 반전운동은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국민들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현재 미국의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공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안보리는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도 반전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부시 정부가 이라크를 공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폭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석유, 중동의 석유

를 장악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또 중동지역에 더 많은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팽창의 역사이며, 이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에서는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한국의 두 여중생이 희생된 사건으로부터 촉발된 반미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군법정에 의해 당시 장갑차를 운전했던 사병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너무 고압적이고 오만한 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에 계속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분노와 공분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군인들을 주둔시키면서 해당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미국의 오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한국은 현재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언제나 전쟁의 가능성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의 이러한 정치 외교적 판단의 근거와 그 궁극적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것처럼 적대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협상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대외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외정책을 결정하며 거의 항상 의회는 뒤를 따르기만 합니다. 다시 말해,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부시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국에 군사기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간에 긴장을 지속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  
선생님께서는 이 책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마키아벨리즘에 입각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의해 미국의 모든 정책이 입안됐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지도자들은 대외 정책을 ‘국익에 도움이 되며 세계에 대한 책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이 같은 허구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국익’이라는 관념이 미국민의 이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익

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각기 다른 이익만이 있을 뿐이며, 미국 정부의 이익이 미국민의 이익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에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11테러가 미국 정부에게는 팍스아메리카나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점을 우려해서 전쟁은 또 다른 테러의 씨앗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방과 아랍 세계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전쟁과 테러의 본질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은 잘못된 것입니다. 테러리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란 없으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은 잔인할 뿐더러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지요.

—  
선생님께서 미국이 수행했던 전쟁의 역사들을 일일이 분석하시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국가 형성 초기부터 줄곧 침략성과 폭력, 기만이 동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폭력이 위협한 것은 그것이 정의와 세계 평화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위험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도덕적 위험은 군사적 초강대국이라

는 오만입니다. 이 오만을 버리고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  
최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적 가치를 내건 정치적 자주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반기를 드는 제3세계의 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반전시위는 전세계적인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3세계의 자주적 운동을 지지합니다.

—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한미관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과 미국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을 석유 및 군수산업 같은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중동정책의 중심은 석유이며,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려는 계획의 핵심 요인입니다. 저는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려는 미국의 현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베트남전쟁과 1차 걸프전에 반대했으며, 1950~53년의 한국전쟁 역시 애초부터 수백만의 한국인과 3

만 5천 명의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3년간의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 “우리가 원한다면, 그렇게 행동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구촌에는 국가와 국가의 전쟁뿐 아니라, 종교간, 인종간의 분규 같은 정치적 맥락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전쟁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분규들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금세기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전쟁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끝으로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모색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_mail 인터뷰 진행 <출판저널> 취재팀  
유강은 옮김